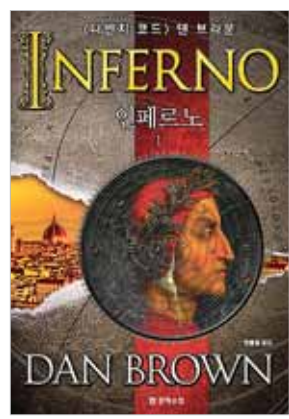


초판 4만부 이어 4만부 재판... '7년의 밤'도 다시 인기

정유정 '28'



4년만의 신작... '다비치코드' 이어 히트

댄 브라운 '인페르노'



일주일만에 30만부 판매... 리스트 음악도 덩달아 주목

무라카미 하루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

여름서점가 한·미·일 '소설大戰' 시작됐다

여름 서점가에 '소설 전쟁'이 뜨겁다. 국내외 인기 작가들의 신작이 쏟아져 나오면서 독서 시장에 일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집계한 7월 첫주 전국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가 1위를 차지했다.

정유정의 소설 '28'(은행나무)은 3위, 댄 브라운의 '인페르노'(문학수첩)는 7위에 올랐다. 여기에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조정래 등의 신작도 예정돼 있어 서점가는 시너지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을 기점으로 한·미·일 '소설 대전(大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발간 1주일 만에 30만부가 팔려나간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의 상승세가 무섭다. 초판 20만부 발행, 선인세 1억5000만원

내에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하루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분간은 하루키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년의 밤' 이후 2년 만에 펴낸 정유정 작가의 '28'도 인기몰이 중이다. 6월에 초판 4만부 발행 이후 한 달 만에

4만부를 추가로 찍었다. 합평 출신 작가는 보통의 한국 작가들과는 다른 방식과 소재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서사와 추리 방식의 영미소설 전개는 새로운 소설에 목말라하는 독자에게 어필한다. 윤미화 에스24 홍보담당자는 "정유정 작가의 경우 '28' 발간과 동시에 '7년의 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구제역 과동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흡인력있게 녹여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며 하반기까지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 생화학테러 음모에 접근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그렸다. 오노 15일에 출간 예정인 조정래의 소설도 고정 독자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3월부터 포털사이트에 연재했던 '정글만리'(해냄)는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한 중국의 어두운 이면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형상화했다. 정이현의 '안녕 내 모든 것'(창비), 김진명의 '고구려5'(새움)도 경쟁에 뛰어 들었다. 또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문학동네)도 곧 출간을 앞두고 있어 올 여름 유례없는 '소설전쟁'이 예고된다. 이처럼 수년간 지속된 출판 불황을 뚫고 소설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문학의 본질인 인간과 삶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꽃과 자연 그리고 집 행복한 동행

박정희 개인전 10~16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



'심상정원2'

누구나 한번쯤은 꿈꿨을 법한 풍경들이 화폭에 펼쳐진다. 꽃과 자연, 그리고 웅기종기 모인 집들이 만들어 내는 화음이 한없이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 캔버스에서는 문득 고향 풍경이 떠오른다. 차가운 색채를 따뜻하게 그리는 서양화가 박정희씨가 10~16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행복한 동행:그 서정의 그리움을 찾아서'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행복한 동행' '축복' '행복한 시간' 시리즈 등 모두 25점이 전시된다. '행복한 동행' 시리즈는 박씨가 유년 시절 행복한 기억을 더듬어 재해석한 마음속 풍경을 화폭에 옮긴 작품들로 축복, 행복한 시간, 정원 시리즈도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통로로 연결된다. 박씨는 예술의 전당과 서울 시립미술 등에서 모두 14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회화대전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2-736-6669. /김경민기자 kki@

'한여름밤의 거리 인문학 休'

무등지성, 10~31일 남광주 푸른길 공원

전남대 비정규교수 학술모임 무등지성이 '거리 인문학'으로 광주 시민을 만난다. 무등지성은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남광주 푸른길 공원에서 '한여름밤의 거리 인문학 休' 강좌를 연다. (사)푸른길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책을 통해 심신의 평안과 여유를 찾자는 데 목적이 있다. 무등지성 관계자는 "우리 나라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평균 이하이다"며 "인문학을 통해 휴식의 가치와 진정한 '쉼'을 얻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좌가 열리는 남광주 푸른길은 최근 남광주시장 주차장 인근에 신설된 공간으로, 시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인문학을 부담없이 접할 수 있는 거리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10일 첫 강좌는 박해웅(철학) 박사가 '휴식, 그 의미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시민을 만난다. 17일엔 정의석(심리학) 박사가 '마음 편안하세요?- 심리학이 전하는 내면의 평화'를, 24일엔 이송희(국문학) 박사가 '그리운 이와 함께하는 바다, 시 그리고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마지막 31일엔 장복동(철학) 박사가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숲'을 테마로 강의한다. 무등지성은 문학, 철학, 사회학 등을 전공한 전남대 비정규교수인 문학 공동체로 광주 총장서립과 함께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신안동 SJ빌딩에서 매주 자체 강좌를 열었다. 문의 062-526-1250.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기타·피아노·국악... '황토제' 음악잔치

10일 남도소리 상설 공연 무대에

베이스 기타, 피아노, 그리고 국악기 피아노와 국악기의 만남 '우리 기뻐 좋은날'(박미영 곡), '비상'(이경섭 곡) 등이 연주된다. 국악 실내악단 황토제(대표 이왕재)가 광주문화예회관이 주최하는 남도소리 상설 공연 무대에 선다.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푸르른 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의 서막은 베이스 기타와 어우러진 비나리가 장식한다. 이어 실내악 합주 '플라이 투 더 스카이'(한태수 곡), 판소리 '수궁가'와 실내악이 어우러진 '래빗 스토리 오브 카덴자'(김선제 곡), 드럼과 베이스 기타,

피아노와 국악기의 만남 '우리 기뻐 좋은날'(박미영 곡), '비상'(이경섭 곡) 등이 연주된다. 국악 실내악단 황토제(대표 이왕재)가 광주문화예회관이 주최하는 남도소리 상설 공연 무대에 선다.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푸르른 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의 서막은 베이스 기타와 어우러진 비나리가 장식한다. 이어 실내악 합주 '플라이 투 더 스카이'(한태수 곡), 판소리 '수궁가'와 실내악이 어우러진 '래빗 스토리 오브 카덴자'(김선제 곡), 드럼과 베이스 기타,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